
국외 배낭연수 결과 보고서

아 산 시
[아네모네]



순 서



I. 연수 개요	1
① 연수목적	1
② 연수일정	1
③ 주요조사내용	1
④ 연수세부일정	6
⑤ 연수자명단	7
II. 연수 내용	7
① 일반현황	7
② 주요 방문 도시	8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14

국외 배낭연수 결과보고서

I 연 수 개 요

① 연수목적

- 고대문명을 대표하는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과 유적지 견학
- 현재 아신시 문화유산을 토대로 관광자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② 연수 일정

- 연수기간 : 2019. 5. 11.(토)~5. 19.(일)
- 연수국가 : 그리스
- 연수인원 : 4명

③ 주요조사내용

○ 문화

그리스인들은 자국을 “Hellas(헬라스)”라 부른다. 그리스라는 말은 터키 지배 당시 불리던 국명으로, 고대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공동의 언어와 유산을 가지고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고, 각각 독특한 정부형태를 가진 도시국가를 만들어 살았다.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오리엔트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좀 더 자유롭고 인간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또한 오리엔트 문명과 그들의 문화를 접목시켜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하였으며, 후에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를 벗어나 아시아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 의상

고대 그리스의 의상은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는 헐렁한 의상을 기본으로 아름다움의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하는 그리스의 예술성이 잘 살아 있다.

- 1) 키톤(chiton) : 이오니아식은 이오니아 지방의 남녀가 착용한 기본 의상으로, 도리스식 키톤보다 폭이 두 배나 되며 길이는 발목까지 오는 것이 특징이다. 얇은 천을 사용하여 속이 비치고 주름이 많다. 도리스식은 주로 모직을 사용하고, 한 장의 큰 천을 접어 양 어깨를 '피블라'라고 하는 장식 핀으로 여미고 허리를 묶어 입었다.
- 2) 하마티온(himation) : 어깨에 두르고 길이는 땅바닥까지 닿는 형태로, 외출할 때 입는 망토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통해 신분이나 직업을 구분했다.
- 3) 클라미스(chlamys) : 히마티온이 변형된 것으로, 키톤 위에 입는 짧은 망토이다. 주로 여행자나 군인들이 입었다.
- 4) 그리스 민속 의상 : 비잔틴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리스의 민속 복장으로, 남자들은 그리스 영웅인 에브조네스의 복장을 모방한 에브조네스 복장을 한다. 그리스 민속 의상은 단순하지만 고대 문명의 자취가 남아 있어 품위 있으며, 민속춤인 칼라마티아노를 출 때 이 민속 복장을 한다.

○ 음식

고대 그리스에서는 요리를 과학이자 예술로 여겼으며,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에게 음식이란 영양 섭취 이상의 예술적, 제례적, 축제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의 요리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며 간소하고 꾸밈없는 것이 특징으로 프랑스, 이태리 음식과 함께 서양 3대 요리에 속한다. 특히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과 야채를 많이 써 현대에도 다이어트,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 대외관계

그리스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195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61), 유럽 연합(EU, 1981년), 서유럽 연합(WEU, 1995), 유럽경제통화동맹(2001), 유럽 우주국(ESA, 2005) 가입국이고, 흑해 경제 협력 기구의 창립 회원국이다.

그리스의 주요한 외교 문제로는 키프로스와 에게해를 두고 터키와 갈등을 빚고 있다. 19세기까지 수백 년간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스는 터키에 대해 적대적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영향으로 키프로스 공화국 내부에서 터키계(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가 대립하고 있다. 또한 북마케도니아의 국호 변경 전까지 마케도니아 국호 분쟁이 있었다.

그리스는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병하여 지원하였다. 1961년에 대한민국과 공식 수교하였다.

○ 종교

그리스도교가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로부터 공인(AD 313)되기 이전부터 보급되어 있던 종파로 그리스, 러시아, 동유럽 등의 지역에서 사도 시대(예수 탄생 후인 AD 30년경)부터 발전한 그리스도 교회의 총칭으로 '그리스정교회' 또는 '동방정교회'라고도 한다.

그리스 종교는 로마, 이집트, 고대 인도, 이란의 종교처럼 고대 다신교에 속한다. 개별적인 그리스 사회(각각의 도시국가)들은 각각 자신들의 지역의 대표하는 신이 있고 그 신에게 특별한 영광을 바치며 섬긴다.

○ 건축

그리스 건축은 에게 시대 · 그리스 시대 · 그리스 후기의 각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특색이 있으나, 결국 서로 관련되어 한 양식을 형성하였으며, 그 천재적인 미의 관념과 기술이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석재를 이용하여 역사상 매우 훌륭한 석조건축문화를 대성하였다.

그리스의 신전은 최초에는 목재, 다음에는 석회석과 같은 무른 석재들로 지어졌으나, 마지막에는 대리석으로 바뀌었다.

그리스의 신전형식은 그 기둥의 양식(樣式)의 차이로 도리스식(Doric式), 이오니아식(Ionic式), 코린트식(Corinthian式)으로 분류된다.

도리스식의 특징은 간소하고 기단(基壇)에 직접 원주(圓柱)가 세워졌으며, 위로 갈수록 굽기가 줄어든다. 도리스식 신전으로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은 올림피아의 헬라신전, 델포이나 코린트의 아폴론신전, 올림피아의 제우스신전, 파에스툼의 포세이돈신전, 아테네의 파르테논신전 · 테세이온신전 등이 있는데, 이 신전들은 BC7~BC5세기 사이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이오니아식은 이오니아인들이 살고 있던 소아시아 서해안에서 생긴 양식으로 기둥이 높고 가늘며, 세부에 걸쳐 조각 장식이 많이 있어서 경쾌하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신전은 이 시기의 대표적 이오니아식 작품이라고 한다.

코린트식은 BC 4세기에 들어서서 비로소 나타난 건축미술의 새로운 기법으로 올림피아에이온은 가장 현저한 코린트식 신전이다.

헬레니즘 후기에는 이오니아식과 코린트식을 배합한 혼합식도 생겼다.

○ 신화

그리스 · 로마 신화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해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신화다. 이 신화는 고대인의 상상 세계가 만들어 낸 이야기지만 수천 년이 지난 현대에도 ‘살아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 철학자와 역사가에게 영향을 주었고, 미술과 문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용어가 될 정도로 서양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대인들의 수많은 신화 중에서도 『그리스 · 로마 신화』는 역사적으로 가장 깊은 영향을 서양 문명에 끼쳤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신화의 발상지인 올림포스 산꼭대기 신들의 처소에 머물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리스 신화의 중심이 되는 열두 신(神)들은 현대인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으로 다가온다.

올림포스 최고의 신으로 하늘과 기후, 법과 질서를 다스리는 제우스(Zeus), 제우스의 누이이자 아내로 신들의 여왕이며 일과 결혼을 주관하는 헤라(Hera), 바다와 강의 신으로 가뭄과 홍수, 폭풍, 지진을 주관하는 포세이돈(Poseidon), 땅의 풍요를 관장하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Demeter),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Athena), 전쟁의 남신 아레스(Ares), 음악과 예언을 주관하는 광명의 신 아폴론(Apollon),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Artemis),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 여행과 전령의 신 헤르메스(Hermes), 불과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Hephaestos), 술과 연회를 주관하는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Dionysos) 등이다.

특이한 것은 이 신들은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다. 이 신들은 신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시기하며 다투는 뿐만 아니라 인간들과도 교류하며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그 과정에서 무궁무진한 스토리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바로 그리스신화다.

○ 역사

1) 그리스 문명의 시작

그리스의 국토는 산지가 많은 본토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포도와 올리브 같은 과일 농사에는 적합하지만 곡물 농사가 어려워, 식료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항해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리스가 문명의 발상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곳에서는 기원전 6천 년에 신석기 문화를 시작으로, 기원전 1500년경

부터는 크레타 문명의 영향을 받은 미케네 문명이 독특한 청동기 문화를 이어 갔다. 이후 미케네 문명이 도리스인의 침략으로 멸망한 기원전 1100년부터 약 350년간 그리스는 문자도 없는 암흑 시대를 보내게 된다.

2) 고전 시대와 헬레니즘 시대

기원전 8세기부터는 문화의 부흥과 더불어 도시 국가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필두로 도시 국가인 폴리스가 형성되고 발전함에 따라 민주주의 정치는 물론 철학, 문학, 연극, 미술 분야도 발전을 거듭하였고,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뛰어난 건축물들도 세워진다.

이 시대는 기원전 431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계기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광활한 영토에 그리스의 언어와 종교, 문화를 전파하며 300년간 헬레니즘 시대를 이어 간다.

3) 이민족 통치 시대

기원전 146년부터 그리스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제국의 문화적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기원전 27년에는 완전히 로마에 편입되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안정을 찾게 된다. 4세기 말에는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는 정교회파가 되었고, 비잔틴 제국은 수백 채의 교회와 풍부한 종교 예술을 남기며 15세기까지 계속되었다.

15세기 중반부터 여러 봉건 국가로 분리되었던 그리스는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멸망하면서 350년 동안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4) 독립 후 현대의 그리스

오스만 투르크의 혹독한 지배에도 그리스인들은 상업과 외교에서 실권을 장악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은 유럽 각지의 그리스 상인들은 비밀 결사 조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마침내 독립군이 승리하게 된다.

1830년에 런던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아 1832년에는 그리스 왕국이 성립되었으며, 바이에른의 왕자 오토가 초대 왕으로 즉위한다.

그러나 독립 후에도 크림 전쟁, 발칸 전쟁 등 잦은 전쟁을 치렀고, 공화정과 왕정이 반복되는 등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는다. 2천 년간의 이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난 그리스는, 1981년 EU에 가입하고 민주 국가로서 자리를 잡아 현재의 그리스를 지킬 수 있었다.

4 연수세부일정

월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주요세부일정	비고 (교통편)
5월11일(토)	인천	이스탄불	■ 인천 출발 ⇒ 이스탄불 향발	항공
	이스탄불	아테네	■ 이스탄불 출발 ⇒ 아테네 향발	항공
5월12일(일)	아테네	자킨토스	■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유적지(파르테논 신전, 에릭테온, 니케신전, 이레오바고스 언덕 등) ■ 고린도 -고린도 운하, 아폴로신전, 비마터, 피레네의 샘, 클라우케 우물 등 로마시대 유적지 관광	버스
5월13일(월)	아테네	산토리니	■ 이아마을	배, 버스
5월14일(화)			■ 피라마을 -카마리 해변 및 페리사 해변	
5월15일(수)	산토리니	아테네		배
5월16일(목)	아테네	델피 메테오라	■ 델피유적지 방문 ■ 메테오라 - 수도원 방문	버스
5월17일(금)	메테오라	테르모필레	■ 테르모필레 -레오디나스 청동상 조망, 야외노천 온천계곡 족욕 체험	버스
5월18일(토)	테르모필레	아테네	■ 아테네 -근대올림픽 경기장, 신타그마 광장, 무영용사의 비, 국회의사당 관광	버스
	아테네	수니온	■ 포세이돈 신전, 해안가 산책	
5월19일(일)	이스탄불	인천	이스탄불 출발 ⇒ 인천 도착	항공

⑤ 연수자 명단

소속	직급	성명	담당임무	비고
인주면	행정 6급	나경신	연수계획서 작성 및 사전조사	
둔포면	행정 6급	김미경	경비지출 및 정산	
음봉면	행정 6급	조현주	연수지 자료수집 및 정리	
온양6동	행정 7급	정명숙	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II 연 수 내 용

① 그리스 일반현황



- 정식국명 : 헬레닉 공화국
- 수도 : 아테네
- 언어 : 그리스어
- 면적 : 131,957km² (본토 81%, 도서 19%, 한반도의 2/3배)
- 인구 : 1,112만 4,603명(세계84위)
- 화폐 : 유로(Euro)
- 국내총생산(GDP) : 2,002억 8,827만 7,129달러 (세계52위)
- 기후 : 여름▶ 자중해성 기후(고온건조),
겨울▶ 혼합형 기후(저온다습)
- 위치 :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
자중해와 인접해 있고 이웃나라로는 터키와 발칸반도 국가들이 있다.
- 시차 : 한국보다 7시간 느림
- 정치·의회형태 : 공화제, 내각책임제, 단원제



② 주요 방문 도시

○ 아테네

◆ 아크로폴리스



198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유적지의 중심이자 그리스 전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써 ‘성스러운 바위’라고 불린다.

아테나 여신을 모시던 파르테논 신전과 이오니아 양식의 에릭티온 신전, 프로필라이아 그리고 반원형의 디오니소스 극장 등이 자리한다.

대리석 기둥과 신전 등은 몇천년 전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신비로웠으며, 주변에 현대적 건물은 없고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야경투어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인상 깊은 선물을 안겨주었다.

◆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1호이다.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으로,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이다. 기원전 448년부터 기원전 432년까지 당대 최고의 조각가와 건축가의 설계로 16년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한다.

도리아식 신전의 대표적인 건축일 뿐 아니라 구조, 장식, 의장 기술 등에 있어 그리스 건축의 가장 빛나는 걸작답게 웅장하였다.

◆ 근대올림픽 경기장



아테네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ATHENS STADIUM은 1896년에 최초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 경기장은 BC 330년에 이미 고대 경기장으로 사용되던 자리에 새로 근대 올림픽경기장을 건립한 것인데 이곳은 또 페르시아와의 전쟁 당시 무명의 아테네 병사가 마라톤전쟁에서의 승전보를 아테네시민들에게 전하고 쓰러져 죽은 지점이라고도 한다.

1896년 경기장은 2004년 올림픽 경기 동안에도 양궁 경기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은 스포츠와 관련된 다른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쓰인다고 한다.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칼리마르마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은 “아름다운 대리암으로 장식한” 뜻으로 세계에 있는 주경기장 중에 전부 대리암으로 만들어진 곳은 이 곳이 유일하다고 한다.

◆ 국회의사당과 신타그마 광장



'헌법'을 뜻하는 산타그마 광장은 1843년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장소로 아테네시의 중심 광장이다.

우리나라 광화문과 같은 느낌이지만 크기는 더 작다.

국회의사당에서는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의장병이 문 앞에 좌우로 각각 한 명씩 서서, 서로 30분마다 자리를 바꾸며 1시간이 지나면 의장병 교대식을 거행하고 있어 관광객들에 볼거리를 제공해주었다.

우리나라 광화문 뒤편 홍례문 앞에서 궁궐의 성문을 지키는 군졸들이 매일 수문장 교대식을 거행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 메테오라

◆ 메테오라 수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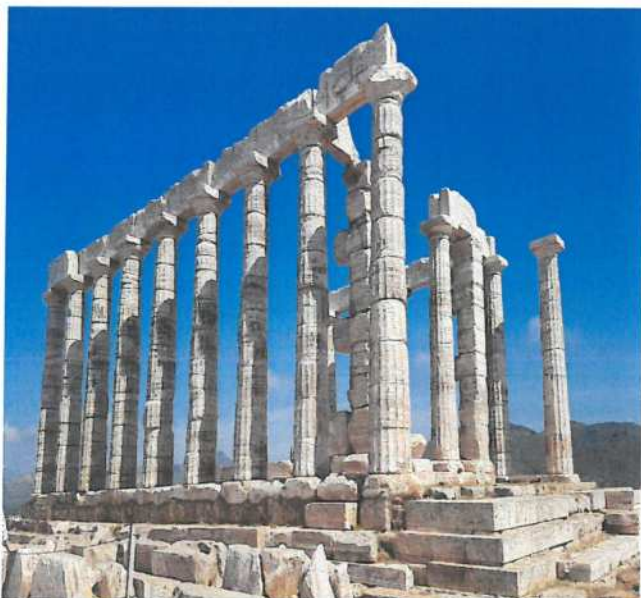


그리스어로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이라는 뜻으로,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 위에 세워져 있어 ‘하늘의 기둥’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한때 스물세 개의 수도원이 세워졌으나 불안정한 지반 때문에 18세기 말에 대부분 무너졌고 현재 여섯 개만 남아 있다고 한다. 각 수도원 성당에는 오래된 벽화들이 매우 아름답고 신비스러웠다.

수직으로 우뚝 솟은 절벽 위에 지은 수도원을 바라보면 도무지 어떻게 건축하고 지었는지 짐작도 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 신은 자연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환경을 만들었구나 싶을 정도로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 수니온 곶

◆ 포세이돈 신전



아테나가 아테나 여신 이름을 따서 명명 되면서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달래고자 바다가 멋지게 보이는 명당에 지었다고 한다. 워낙 전경이 좋은데다 전략적 요충지라 이 지대가 요새처럼 활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에 장벽이 세워진 흔적들도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외세의 침략이 올때는 단결해서 막아내고 지키지만, 침략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서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문화적 차이점은 많지만 이곳에서도 우리나라의 많은 전쟁들과 같이 외세의 침략은 단결해서 막아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하였다.

○ 코린토스

◆ 고린도 운하



그리스의 고린도 운하는 아테네 서쪽 약 87Km에 위치한 1893년에 완공된 세계 3대 운하로 뽑히며 운하의 깊이만 80미터라고 하니,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뚫을지 아이러니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운하였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를 바다로 갈라놓아 많은 시간을 단축시킨 운하이며, 그리스 해상 교통의 중심으로 무역이 활발했고 또 신약성경의 배경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활동을 펼쳐 성지순례 장소로도 유명한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감동이었다.

운하의 거대함과는 대비되는 아기자기한 작은 마을과 하늘과 바다, 절벽 사이사이 피어있는 풀 한 포기도 예사롭지 않았고, 새들이 둥지를 틀고 나무들도 자리를 잡으며 인간이 만든 자리를 자연으로 채워가는 모습을 보았을때, 일상으로 돌아가 견딜 수 없이 힘든 일이있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 마음을 달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 테르모필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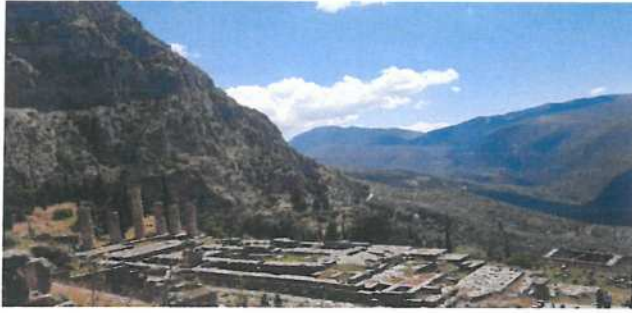
◆ 레오니다스 청동상과 야외노천 온천계곡



테르모필레는 “뜨거운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영화 “300”의 배경지로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지역에서 벌어졌던 페르시아군과 그리스 연합군 사이의 전쟁으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을 비롯한 그리스 연합군 대부분이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끈 페르시아군에게 전멸당했던 지역이라고 한다. 가까운 곳에 야외노천 온천계곡이 있어 관광상품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한다. 실제로 야외노천 유황온천에 몸을 담그고 자연과 함께 온천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델피

◆ 델피유적지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탁을 받던 신탁소가 있는 곳이다. 신전 안에는 황금으로 만든 아폴론상과 세상의 중심임을 알리는 움팔로스가 있었다고 한다. 전설에는 제우스가 2마리의 독수리를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날려보았는데, 2마리의 독수리가 만난 곳이 바로 파르나소스 산 정상이었었는데 이곳을 세상의 중심이라 선포했으며, 그 자리에 아폴론 신전을 세우고, 신전안에는 꺼지지 않는 영원의 불꽃이 있었다고 한다. 델피 유적지에서 발굴된 각종 조각상과 도자기, 모자이크, 전차를 모는 청도 마부상 등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 아폴론 신전과 야외 극장



파르나소스 산에 위치한 고대 올림픽의 도시 델리는 아폴로를 섬기는 곳임과 동시에 고대 그리스 최고의 신탁을 받는 곳이었다고 한다. 기원전 370년 무렵 지붕도 있고 38개의 도리아식 기둥으로 세워졌으나 현재는 7개의 기둥과 토대만 남아있어 아쉬움이 남는 곳이었지만 신비롭고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아폴론 신전 근처에 있는 야외극장이다. 이곳도 스타디움과 마찬가지로 군중 동원을 위한 장소 마련이었다고 한다. 관객석은 35줄로 이곳에서 아폴론이 피돈과 전투하는 모습을 연극화한 찬양극 뿐 아니라 신을 기리는 춤의식을 관람한다고 한다.

○ 산토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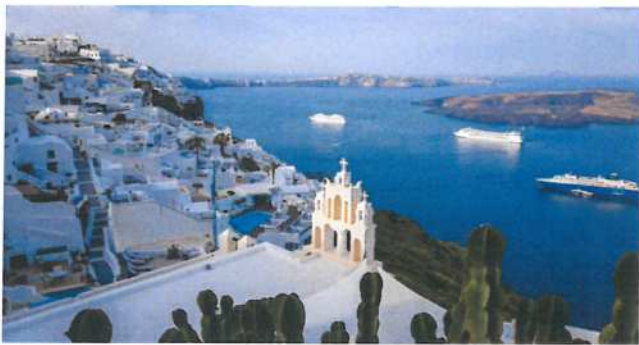
▶ 원래 원형에 가까웠던 산토리니는 화산 폭발로 섬의 가운데 부분이 가라앉아 2개의 섬이 바라보는 듯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 이아마을

이아마을은 골목 골목마다 멋지지 않은 곳이 없으며 맑고 선명한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하늘 그리고 하얀색 건물과 파란지붕들의 건물이 모여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포카리스웨트 광고를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이곳은 온통 하얀색 집에 파란색 지붕의 집들로 그냥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다. 어디서 사진을 찍든 아름다웠으며 지나가는 고양이도 여유로워 보여 부러웠으며, 지중해 너머로 지는 해를 보려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피라마울



피라마울은 이아마을과 같이 하얀색 집들로 들어서 있지만 분위기는 조금 다랐다. 마트와 기념품샵 등이 즐비해 있고 다양한 투어와 당나귀를 이용한 동키 택시를 경험 할 수도 있었지만 똥 냄새와 주변이 지저분하여 추천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 곳도 이아마을과 마찬가지로 석양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항상 붐빈다고 한다.

5월 그리스 날씨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야외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바다와 푸른 하늘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카마리 비치



지중해 푸른 바닷물이 있는 카마리비치는 산토리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이라고 한다.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기에 더 없이 좋은 장소이기도 했다.

모래사장의 모래가 검은 색이라 ‘블랙비치’라는 애칭으로 유명하며 해변가 주변으로 기념품 샵과 식당 등 휴양을 즐기기에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두 갖춰져 있었다.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그리스는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멸망하면서 350년 동안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오스만 투르크는 통치 기간 동안 강력하게 이슬람화를 요구했지만, 그리스 정교의 전통을 지키며 독립 운동을 계속하여 지금의 그리스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 우리나라도 먼 옛날 고조선때부터 고려 임진왜란, 병자호란등 굴욕적인 침략을 수도 없이 당했지만 목숨을 걸고 끝까지 대항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고대국가로 문화자원 및 고대유적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산재되어 있었으며, 과거에는 대자연이 엄청난 재난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연그대로를 보존하고 고대의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흥을 줄 수 있는가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 우리나라도 4차산업 시대로 한발짝 다가가고자 인공지능, 로봇공학, 무인 운송 수단, 나노 기술 등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루며 발전하고 있지만, KT의 서울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서울, 경기 일부 지역 주민이 인공지능을 쓰지 못해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런 사고에 인공지능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기술의 발달도 좋지만 성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 자원고갈 등 부정적 결과에 주의하며 자연과 대립하고 정복하기 보다는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사람들은 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가진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앞으로의 우리의 일이 아닐까 싶다.

○ 산토리니의 호텔들은 동굴식으로 되어 있어서 벽과 천장이 일체형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유는 바람이 많이 불어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 없이 버틸수 있도록 지어진다고 한다. 꿈의 여행지 산토리니에서는 모든 곳이 그림이었고 쇼핑과 먹을거리, 맑은 공기와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다, 푸른 하늘에 지친 마음을 누이고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힐링이 되는 장소였다. 엔젠가는 꼭 가보고 싶었던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올랐다.

○ 아산에도 현충사와 외암마을, 지중해 마을 등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곳은 있지만 그곳의 정서를 느끼며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실정이다. 요즘은 호텔이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닌, 호캉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호텔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숙식을 제공하며 마을 공원에 아산을 대표하는 온천을 이용한 족욕체험장을 이용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식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특별한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다.

○ 그리스를 여행하며 특이한 점은 오늘날 자동차의 대량보급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스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가족을 잃으면 사망한 장소에 가족들이 미니교회를 세워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워놓는다고 한다. 그리스를 여행하며 길거리 여기저기 가는곳마다 세워있는 미니교회를 보며 운전이 좀 더 조심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사고가 많은 곳에 사고다발지역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저 글씨일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금은 특별하게 사고 많은 지역에 사고다발지역이라는 팻말이 아닌 그림이나 모형으로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이 봐도 기억할 수 있는 안내모형을 만들어 세워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 일상이 지겹고 벗어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산토리니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하늘과 노을을 생각하며 여유를 부릴 수 있을 만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곳이었고, 현재의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